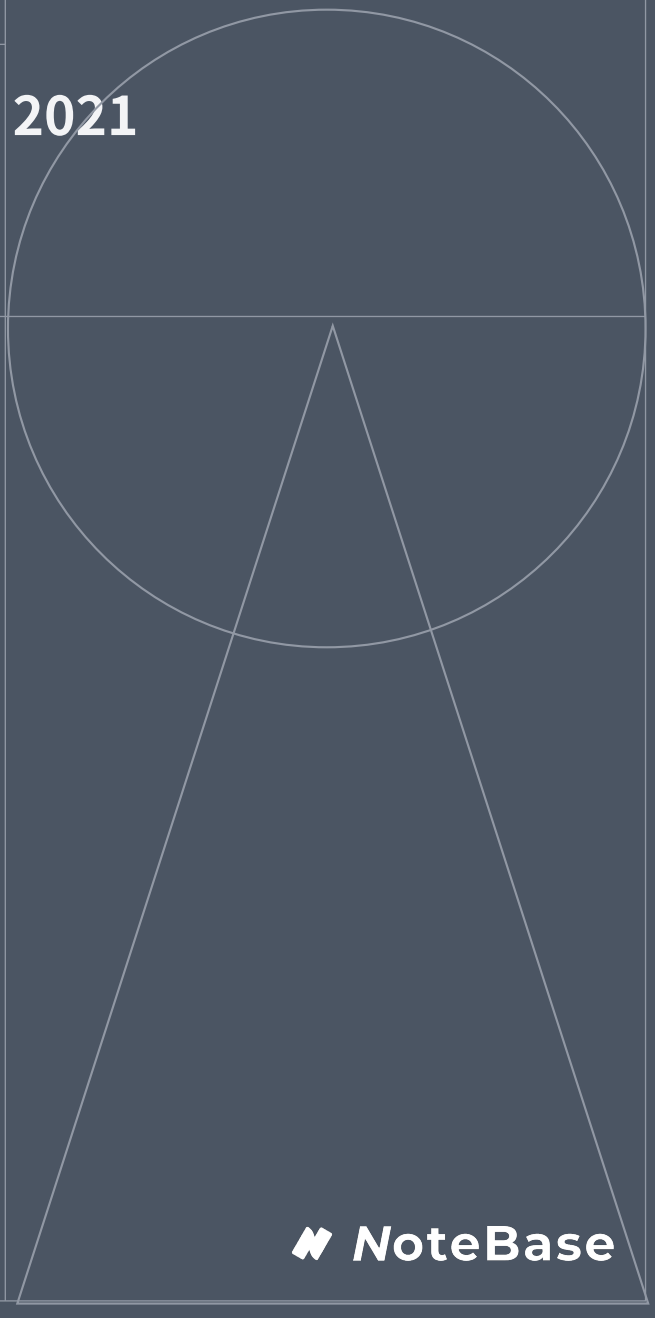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1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1

문 1. <보기>의 밑줄 친 말 중에서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휴일을 ㉠보내는 데에는 ㉡책만 한 것이 없다. 책을 읽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낀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박사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런데 ㉣솔직이 말하면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시험 문제의 답을 잘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책을 읽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지식과 지혜를 ㉥늘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책을 ㉦읽으므로써 나 자신을 성장시키도록 ㉧해야 겠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만'은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이고 뒤의 '한'은 띄어 **'책만 한'**으로 쓴다. 지식과 지혜의 양을 더 많게 한다는 뜻에는 **'늘리고'**가 알맞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데'는 여기서 휴일을 보내는 '일'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 '보내는'과 띄어 쓴다. 조사 '에'와 '는'은 '데'에 붙여 '보내는 데에는'으로 쓴다.

㉡ O: '만'은 책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조사**이므로 '책'에 붙인다. 뒤의 '한'은 '하다'의 활용형으로 앞말과 띄므로 '책만 한'으로 쓴다. 문맥상 책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 X: **'김 박사님의'**로 고친다. 성과 호칭어는 띄어 쓰므로 '김'과 '박사'를 띄운다. 높임의 접미사 '-님'은 '박사'에 붙이고, 조사 '의'도 앞말에 붙인다.

㉣ X: **'솔직히'**로 고친다. 부사의 끝음절이 '이'나 '히'로 나는 경우에는 '-히'로 적으며, '솔직히'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쓴 '솔직이'는 바른 표기가 아니다.

㉤ X: **'맞히기'**로 고친다. 이 문장은 시험 문제의 답을 틀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므로 '맞히다'를 써야 한다. '맞추다'는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다'처럼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여 살핀다는 뜻으로 쓰인다.

㉥ O: 지식과 지혜의 양을 **더 많게 한다**는 뜻이므로 '늘리다'를 활용한 '늘리고'가 알맞다. '늘이다'는 고무줄이나 옷의 길이 등을 본디보다 더 길게 한다는 뜻이므로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 X: **'읽음으로써'**로 고친다. 책을 읽는 일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뜻이므로, '읽다'의 명사형 '읽음'에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를 붙인다.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므로'에는 '써'를 붙이지 않는다.

㉧ X: **'해야겠다'**로 고친다. '해야 하겠다'에서 뒤의 동사 어간 '하-'가 줄어든 말이다. 이때 선어말 어미 '-겠-'을 앞말에 붙여 쓰므로 '해야 겠다'처럼 띄지 않는다.

제시된 짝 가운데 두 표현이 모두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②의 ㉡·㉥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부분의 시제가 나머지 세 문장과 다른 것은?

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네, 너도 많이 늙었다.

② 너는 네 아버지 어릴 때를 꼭 닮았어.

③ 그 사람은 작년에 부쩍 늙었어.

④ 고생해서 그런지 많이 말랐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늙었어'는 '작년에'와 함께 쓰여 **과거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다. '-았/었-'이 쓰였더라도 지금의 모습이나 상태를 말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선어말 어미 '-았/었-'은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현재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어미의 형태만 보지 말고 문맥에서 어느 때의 사건이나 상태를 말하는지 살펴야 한다.

① 현재의 상태: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네'에 이어 상대방의 지금 모습을 보고 '늙었다'고 말한다. 세월이 흐른 결과 **현재 늙어 있는 상태**에 초점이 있다.

② 현재의 상태: '닮았어'는 지금의 네 모습이 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아버지 어릴 때'는 비교 대상의 시기**를 나타내며, 네가 닮은 때를 과거로 한정하는 표현이 아니다.

③ 과거: **'작년에'**가 늙는 변화가 일어난 때를 과거로 한정한다. '늙었어'는 지금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 사람이 부쩍 늙었다는 과거의 일을 서술한다.

④ 현재의 상태: '고생해서 그런지'는 몸이 마른 까닭을 짐작하는 표현이고, '말랐네'는 상대방의 지금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다. 고생한 결과 **현재 몸이 말라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①·②·④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비해, ③은 과거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3.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로만 이루어진 것은?

① 아버님께서는 동생의 철없는 행동을 들으시고는 대노(大怒)하셨다.

②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갈음이 되지 않는다.

③ 새로 산 목거리가 옷과 잘 어울린다.

④ 욜로 가면 지름길이 나온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욜로'는 **'요리로'의 준말**로 인정되는 표준어이다.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욜로 가면'처럼 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대노(大怒)하셨다'는 **'대로(大怒)하셨다'**로 고친다. '크게 화를 내다'라는 뜻의 '대로하다'에서는 한자 '怒'를 본음인 '노'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굳어진 음인 '로'로 적는다. 이처럼 본음과 달리 일부 단어에서 굳어진 한자음을 속음이라고 한다.

② X: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을 뜻한다. 이 문장은 차림새를 근거로 성별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가늠이 되지 않는다'**로 고친다. '가늠'은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림을 뜻한다.

③ X: 목에 거는 장신구를 뜻하므로 '목거리가'는 **'목걸이가'**로 고친다. '목걸이'는 '걸다'의 뜻이 유지되므로 어간 '걸-'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뜻하므로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④ O: **'욜로'는 '요리로'의 준말**로 인정되는 표준어이다. '요리로'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욜로 가면 지름길이 나온다'는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이다.

NoteBase

문 4. 고사성어의 쓰임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肝膽相照하던 벗이 떠나 마음이 쓸쓸하다.

② 두메 속에 사는 토박이 상놈들이 조 의정 집의 위력을 막을 수는 그야말로 螳螂拒轍이었다.

③ 우리의 거사는 騎虎之勢의 형국이니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버티어야 한다.

④ 부부의 연을 맺어 百年河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백년하청(百年河淸)'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뜻한다. 부부가 한평생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늙는다는 문맥에는 **'백년해로(百年偕老)'**가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O: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간과 쓸개를 서로 내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을 이른다.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던 벗이 떠나 쓸쓸하다는 문맥에 어울린다.

② O: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강한 상대에게 맞섬**을 비유한다. 힘없는 토박이들이 조 의정 집의 막강한 위력을 막으려는 상황에 어울린다.

③ O: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려 도중에 내릴 수 없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이른다. 거사를 시작했으니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문맥에 어울린다.

④ X: '백년하청(百年河淸)'은 황허강의 흐린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른다. 부부가 평생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므로, '百年河淸하기'를 **'백년해로(百年偕老)하기'**로 고쳐야 한다. '백년해로'는 부부가 한평생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늙음을 뜻한다.

NoteBase

문 5.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성자는 발음 기관의 상형을 통해 만들어졌다.

②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하는 자음자들은 형태상 유사성을 지닌다.

③ 중성자는 기본자를 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④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은 **초성자의 기본자**이다. 중성자의 기본자 'ㆍ, ㅡ, ㅣ'는 각각 **하늘·땅·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중성자는 모음을 적는 글자로, 기본자 'ㆍ, ㅡ, ㅣ'는 각각 하늘·땅·사람을 본떴다.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은 초성자의 기본자**인 'ㄱ, ㄴ, ㅁ, ㅅ, ㅇ'이다. 따라서 선지의 '중성자는'을 '초성자의 기본자는'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자음자는 조음 위치에 따라 기본자를 정하고, 관련된 글자를 만들 때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ㅋ'은 'ㄱ'에 획을 더한 글자이므로,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하는 두 글자는 형태가 비슷하다.

③ O: 중성자의 기본자는 'ㆍ, ㅡ, ㅣ'이다. 'ㅡ'나 'ㅣ'에 'ㆍ'를 하나 결합하여 초출자 'ㅗ, ㅏ, ㅜ, ㅓ'를 만들고, 'ㆍ'를 하나 더 결합하여 재출자 'ㅛ, ㅑ, ㅠ, ㅕ'를 만들었다. 이처럼 **기본자를 조합**하여 중성자를 확장하였다.

④ O: 종성은 음절의 끝소리를 적는 자리이다. 종성에 쓸 글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였으며, 이를 '종성부용초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각'의 첫소리와 끝소리는 모두 'ㄱ'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6. <보기>의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①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② 대결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

③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였다.

④ 현실 비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의 시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 시는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 내자는 내용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기뻐하는 '너'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슬픔**을 일깨워,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아가자고 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할머니의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너'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을 즐긴다. 화자가 이런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나누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는 기쁨으로 슬픔을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쁨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웃의 슬픔에 공감하자는 것이다.

② O: 화자는 '너'의 무관심을 꾸짖지만, 끝내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고 말한다. 이는 '너'를 배척하거나 대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너'의 변화를 이끌어 **함께 슬픔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려는 태도이다. 이 점에서 화합과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O: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보통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랑보다 부정적으로 여기는 슬픔을 더 가치 있게 내세운다는 점에서 **역설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 시의 슬픔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는 힘이고, 비판받는 사랑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무관심한 사랑보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슬픔이 더 소중하다는 진실이 담겨 있다.

④ O: 추위에 떠는 할머니에게서 귤값을 깎고, 동사자에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는 모습은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화자는 이를 비판하면서 '너'에게 슬픔과 눈물을 일깨우려 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전하므로 교훈적인 성격도 지닌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아젠다(agenda) ㄴ. 시저(Caesar)
ㄷ. 레크레이션(recreation) ㄹ. 싸이트(site)
ㅁ. 팸플릿(pamphlet) ㅂ. 규슈(キュウシュウ, 九州)

① ㄱ, ㄷ, ㄹ
② ㄴ, ㅁ, ㅂ
③ ㄱ, ㄴ, ㄷ, ㅂ
④ ㄴ, ㄷ, ㄹ, 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시저'는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어 인정되는 **관용 표기**이다. '규슈'는 일본어의 **장모음을 따로 적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 표기이다.

보기별 해설

ㄱ. X: agenda의 첫 모음 [☒]는 '아'가 아니라 '어'로 적는다. 따라서 '아젠다'를 **'어젠다'**로 고쳐야 한다.

ㄴ. O: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는 인명은 관용을 따른다. Caesar를 **'시저'**로 적는 것은 이 관용에 따른 표기이다.

ㄷ. X: recreation은 **'레크리에이션'**으로 적는다. '리에이'에 해당하는 소리를 '레이'로 줄인 '레크레이션'은 잘못된 표기이다.

ㄹ. X: site의 첫소리 [s]는 'ㅆ'이 아니라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싸이트'를 **'사이트'**로 고쳐야 한다.

ㅁ. O: pamphlet은 **'팸플릿'**으로 적는다. 첫 음절의 모음은 'ㅐ'로, 마지막 음절은 '릿'으로 적으므로 '팜플렛'과 구별한다.

ㅂ. O: 일본어 표기에서는 **장모음을 따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キュウシュウ(九州)는 모음의 길이를 드러내어 '규우슈우'로 적지 않고 '규슈'로 적는다.

외래어 표기가 옳은 보기는 ㄴ, ㅁ, ㅂ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보기>에서 중의성이 발생한 원인이 같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아버지께 꼭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ㄴ. 철수는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ㄷ. 철수는 아내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ㄹ. 잘생긴 영수의 동생을 만났다.
ㅁ. 그것이 정말 사과냐?
ㅂ. 영희는 어제 빨간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ㅂ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ㄴ의 '아름다운'과 ㄹ의 '잘생긴'은 각각 뒤에 오는 두 명사 중 어느 것을 꾸미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두 문장 모두 **관형어의 수식 범위**가 중의성의 원인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어휘적 중의성: '차'는 **자동차 또는 마시는 차**를 뜻할 수 있다. 문장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중의성이 생긴다.

ㄴ. 관형어의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 '아름다운'이 **'하늘'을 꾸미는지 '구름'을 꾸미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았다는 뜻과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구름'을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ㄷ. 비교 구문에서 성분이 생략되어 생기는 중의성: '아내보다'에서 **아내가 비교되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철수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는 뜻과, 아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철수가 딸을 더 사랑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의 해석은 사랑받는 두 대상을, 뒤의 해석은 딸을 사랑하는 두 사람을 비교한다.

ㄹ. 관형어의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 '잘생긴'이 **'영수'를 꾸미는지 '동생'을 꾸미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잘생긴 영수의 동생'을 만났다는 뜻과 '영수의 잘생긴 동생'을 만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ㅁ. 어휘적 중의성: '사과'는 **과일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을 뜻할 수 있다. ㄱ과 마찬가지로 동음이의어 때문에 뜻이 둘로 갈린다.

ㅂ.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않았다'가 부정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학교에 간 일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고, 학교에는 갔으나 '어제'라는 시점이나 '빨간 모자를 쓰고'라는 차림을 부정할 수도 있다.

중의성의 원인이 같은 것은 관형어의 수식 범위가 달라지는 ㄴ과 ㄹ이며, 이는 ②의 짝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① ㉠은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을 의미한다.

② ㉡은 친동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은 다른 향가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생생한 표현이다.

④ ㉣은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아아'는 **10구체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쓰이는 감탄사**이다. 다른 향가에서도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이므로, 이 작품에서만 보기 드물게 쓰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른 바람'은 잎을 때 이르게 떨어뜨리는 바람으로, 누이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을 비유한다. '이른'이라는 말에는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죽음**의 뜻이 담겨 누이의 요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② O: 한 나뭇가지에서 잎들이 돋아나는 모습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비유한다. 따라서 '한 가지에 나고'는 화자와 죽은 누이가 친동기, 곧 혈육 관계임을 나타낸다.

③ X: '아아'는 10구체 향가의 마지막 두 구인 낙구의 첫머리에 놓이는 감탄사이다. 이는 **다른 10구체 향가에서도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이므로, 다른 향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설명을 고쳐야 한다. 이 작품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불교적 믿음에 바탕을 둔 재회의 소망으로 시상을 전환하는 구실을 한다.

④ O: '미타찰'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이다. 화자는 그곳에서 누이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고 다짐한다. 이는 **불교적 믿음으로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을 대충 걷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②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③ 정작 일을 서둘고 보니 당초의 예상과는 딴판으로 돈이 잘 걷히지 않았다.

④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예산을 대강 짐작하여 헤아린다는 뜻에는 **'걷잡다'**를 써야 하므로 '걷잡아서'를 '겉잡아서'로 고친다. '걷잡다'는 기울어 가는 형세를 붙들거나 마음을 진정하고 억제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린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예산의 규모를 대충 헤아려 말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겉잡아서'**로 고쳐야 한다. '걷잡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를 붙들어 잡거나 마음을 진정하고 억제한다는 뜻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처럼 쓴다.

② O: '방불하다'에는 거의 비슷하다는 뜻 외에 **흐릿하거나 어렴풋하다**는 뜻도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 속에서 어렴풋하게 떠오른다는 문맥이므로 '방불하게'를 쓸 수 있다.

③ O: **'서둘다'는 '서두르다'의 준말**로, 둘 다 표준어이다. '서둘고'는 '서둘-'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붙은 형태이므로 바른 활용이다. '서두르고 보니'로도 쓸 수 있다.

④ O: '갈음하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는 뜻이다. 여러분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하는 말로 치사를 대신한다는 의미이므로 '갈음합니다'가 문맥에 맞는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나) 어간 받침 'ㄼ, ㄿ'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① (가): (신을) 신기다, (나): 여덟도
② (가): (나이가) 젊지, (나): 핥다
③ (가): (신을) 신기다, (나): 핥다
④ (가): (나이가) 젊지, (나): 여덟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두 규정은 모두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된다. '젊지'는 어미의 'ㅈ'이 [ㅉ]으로, '핥다'는 어미의 'ㄷ'이 [ㄸ]으로 발음되는 예이다.

대응 관계 해설

(가): '젊지'는 어간 '젊-'에 어미 '-지'가 결합한 말이다. 어간의 겹받침 'ㄻ'은 [ㅁ]으로 소리 나고, 어미의 첫소리 'ㅈ'은 된소리 [ㅉ]으로 바뀌므로 [점찌]로 발음한다. 반면 '(신을) 신기다'의 '-기-'는 **어미가 아니라 사동 접미사**이다. 따라서 (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신끼다]가 아닌 [신기다]로 발음한다.

(나): '핥다'는 어간 '핥-'에 어미 '-다'가 결합한 말이다. 어간의 겹받침 'ㄾ'은 [ㄹ]로 소리 나고,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 [ㄸ]으로 바뀌므로 [할따]로 발음한다. 반면 '여덟도'는 수사 '여덟'에 보조사 '도'가 붙은 말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아니다**. 겹받침 'ㄼ'은 [ㄹ]로 소리 나지만 '도'의 'ㄷ'은 된소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여덜도]로 발음한다.

따라서 (가)에 '젊지', (나)에 '핥다'를 대응시킨 ②가 두 규정에 맞는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② 부동산 경기를 타고 건축 붐이 일었다.

③ 착한 일을 한 덕분에 방송을 타게 됐다.

④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음악적 소질을 타고'의 '타다'는 재능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다**라는 뜻이다. 무엇에 실리거나 조건을 이용한다는 '타다'와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바람을 타고': 연이 **바람에 실려 움직인다**는 뜻이다. 바람의 힘으로 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을 나타낸다.

② '부동산 경기를 타고': 부동산 경기라는 **조건이나 기회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힘입어 건축 붐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③ '방송을 타게': 사람의 모습이나 소식이 **방송 전파에 실려 전해진다**는 뜻이다. 착한 일을 한 사실이 방송에 소개되는 상황으로, ①처럼 어떤 매개에 실리는 의미이다.

④ '음악적 소질을 타고':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선천적으로 지닌다**는 뜻이다. 소질을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①~③의 '타다'는 무엇에 실리거나 그 흐름·조건을 이용한다는 관련된 뜻들을 가진 하나의 다의어이다. ④의 '타다'는 이와 소리는 같지만 뜻의 관련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므로 나머지 셋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아닌 것은?

①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② 군인인 형이 휴가를 나왔다.

③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④ 소녀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나에게'는 선물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며 서술어 '주었다'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관형어는 서술어가 아니라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공통 해설

관형어는 명사·대명사·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밑줄 친 말의 품사나 형태보다 문장 안에서 무엇을 꾸미는지 살펴야 한다.

'새'는 명사 '옷'을, '군인인'은 명사 '형'을, '시골의'는 명사 '풍경'을 꾸민다. 세 표현은 모두 뒤에 오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므로 관형어이다.

반면 '나에게'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며 **서술어 '주었다'를 꾸민다**. 뒤에 명사 '선물'이 있더라도 '선물'을 꾸미는 것은 아니므로,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① 이 책은 머릿말부터 마음에 들었다.

② 복도에서 윗층에 사는 노부부를 만났다.

③ 햇님이 방긋 웃는 듯하다.

④ 북엇국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북어'와 '국'이 결합하면 '국'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넣어 '북엇국'**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머릿말'은 **'머리말'**로 고쳐야 한다. '머리'와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머리말]로 발음되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② X: '윗층'은 **'위층'**으로 고쳐야 한다. 뒷말 '층'의 첫소리 'ㅊ'은 거센소리이다.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므로 '위'로 쓴다.

③ X: '햇님'은 **'해님'**으로 고쳐야 한다.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다. 사이시옷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합성어에 적으므로, 접미사가 결합한 이 말에는 적지 않는다.

④ O: '북엇국'은 한자어 '북어'와 고유어 '국'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발음은 [부거꾹] 또는 [부걷꾹]이다.

NoteBase

문 15.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너야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②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③ 힘깨나 쓴다고 자랑하지 마라.

④ 밥은 커녕 빵도 못 먹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은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밥은커녕'**으로 쓴다. 조사가 이어 붙는 경우에도 그 사이를 띄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야말로'는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너'에 붙여 '너야말로'로 쓴다. '만하다'는 그럴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칭찬받을 만하다'**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② O: '수'는 어떤 일을 할 방법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말할'과 띄어 쓴다. 반면 '밖에'는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수'에 붙인다.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로 쓴다.

③ O: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므로 앞말 '힘'에 붙여 '힘깨나'로 쓴다. 힘을 제법 쓴다는 뜻을 나타낸다.

④ X: '은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 '밥'에 붙여 써야 한다. 조사는 다른 조사와 이어져도 띄지 않는다. 따라서 '밥은커녕'을 **'밥은커녕'**으로 고쳐 '밥은커녕 빵도 못 먹었다.'로 쓴다.

NoteBase

문 16.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겨레’는 근대국어에서 ‘친족’을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민족’을 뜻하여 의미가 확대되었다.

② ‘얼굴’은 중세국어에서 ‘형체’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안면’을 뜻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③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여 의미가 상승하였다.

④ ‘계집’은 중세국어에서 ‘여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하락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바뀐 것은 **의미의 이동**이다. 지적 능력을 나타내던 말이 연령을 나타내게 된 변화이므로,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의미의 상승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겨레'는 근대국어에서 친족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민족을 가리킨다. 친족 집단을 넘어 민족 전체를 나타내게 되어 **지시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의미의 확대에 해당한다.

② O: '얼굴'은 중세국어에서 형체나 모습 전체를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안면을 뜻한다. 전체 형체에서 그 일부인 안면으로 **지시 범위가 좁아졌으므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③ X: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를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를 뜻한다. 지적 능력에 관한 의미에서 연령에 관한 의미로 바뀌었으므로 '의미가 상승하였다'를 **'의미가 이동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의미의 상승은 단어에 담긴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이전보다 높아지는 변화이며, 이 사례는 그러한 가치 변화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O: '계집'은 중세국어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인다. 대상을 가리키는 말에 **비하하는 의미가 더해졌으므로** 의미의 하락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부인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 날짜 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② 굴삭기에는 굴삭 시건장치를 갖춰야 한다.
→ 굴삭기에는 굴삭 멈춤장치를 갖춰야 한다.

③ 소작농에게 농지를 불하하였다.
→ 소작농에게 농지를 매각하였다.

④ 공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시건장치'는 잠그는 장치이므로 **'잠금장치'**로 바꾸어야 한다. '멈춤장치'로 바꾸면 동작을 멈추게 하는 장치라는 뜻이 되어 원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부인'은 날짜를 표시하여 찍는 도장이므로 **'날짜 도장'**으로 바꿀 수 있다. 접수증에 날짜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② X: '시건장치'는 자물쇠 등으로 잠그는 장치를 뜻하므로 **'잠금장치'**로 바꾸어야 한다. '멈춤장치'는 동작을 멈추게 하는 장치를 뜻하여 잠그는 기능을 나타내는 원래 말과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굴삭기에는 굴삭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로 고친다.

③ O: '불하하다'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뜻한다. 이 문장에서는 농지를 소작농에게 판다는 의미이므로 **'매각하였다'**로 바꿀 수 있다.

④ O: '지득하다'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이다. '공무상 지득한 사실'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의미이므로 바꾼 표현이 원래 뜻을 유지한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작품과 형식이 다른 것은?

<보기>

우는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ᄉᆞ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뛰노ᄂᆞ다.

① 「면앙정가」
② 「오우가」
③ 「훈민가」
④ 「도산십이곡」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기의 「어부사시사」는 여러 수의 시조를 엮은 **연시조**이다. 「면앙정가」는 4음보의 율격을 길게 이어 가는 **가사**이므로 형식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중 일부이다. 「어부사시사」는 봄·여름·가을·겨울을 각 10수씩 노래한 40수의 연시조이다. 제시된 부분에는 '이어라 이어라', '지국총' 등의 후렴이 끼어 있지만, 후렴을 제외한 본문은 초장·중장·종장의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시조는 이처럼 시조 여러 수를 하나의 주제로 엮은 형식이다.

① 「면앙정가」: 송순이 지은 **가사**이다. 가사는 시조처럼 한 수를 초장·중장·종장으로 완결하는 형식과 달리,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행수의 제한 없이 길게 이어 가는 형식이다. 따라서 연시조인 보기와 형식이 다르다.

② 「오우가」: 윤선도가 지은 **6수의 연시조**이다. 물·돌·소나무·대나무·달을 벗으로 삼아 노래한 시조들을 엮었으므로, 보기와 같은 연시조 형식이다.

③ 「훈민가」: 정철이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16수의 연시조**이다. 각 수에 유교적 윤리와 생활의 도리를 담아 하나의 작품으로 엮었으므로, 보기와 같은 연시조 형식이다.

④ 「도산십이곡」: 이황이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자연 속에서의 삶과 뜻을 노래한 전반 6수인 '언지'와 학문·수양을 노래한 후반 6수인 '언학'으로 이루어지며, 보기와 같은 연시조 형식이다.

보기와 형식이 다른 작품은 가사인 ① 「면앙정가」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 ㉡에 들어갈 접속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과학 연구와 기술 훈련을 위하여 외국에 갔다 돌아오고, 또 많은 외국의 기술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과학 기술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문화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더욱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선진 과학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이것을 발전시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반의 계획과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다운 경제 자립을 이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외교의 자주성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 선진 기술을 어떠한 원칙에서 받아들여, 어떠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부터 진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은,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 박익수, 「우리 과학 기술 진흥책」 -

① ㉠은 조건, 이유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순접' 기능을 한다.

② ㉡은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요약' 기능을 한다.

③ ㉠은 반대, 대립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역접' 기능을 한다.

④ ㉡은 다른 내용을 도입하는 '전환' 기능을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 앞에서는 외국과의 과학 기술 교류가 주는 이익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이를 제대로 소화하고 발전시킬 계획이 없을 때의 위험을 경고한다. 긍정적인 설명에 **제한을 가하는 역접** 관계이므로 '그러나'가 자연스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앞은 과학 기술 교류가 발전과 근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고, 뒤는 계획과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자립과 자주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앞의 긍정적 효과에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순접이 아니라, 그 효과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음을 밝히는 **역접**이다. 뒤 문장 안의 '갖추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 표현을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와 혼동하면 안 된다.

② X: ㉡ 뒤에서는 앞서 경고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앞의 내용을 짧게 추리는 요약이나 대등하게 나란히 잇는 관계가 아니라, 앞의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이끄는 **인과적 순접**이다. '그러므로'나 '따라서'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O: ㉠ 앞의 '근대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교류의 이익을 긍정한다. 반면 뒤에서는 선진 기술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없으면 경제 자립과 정치·외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앞의 긍정적 평가에 **반대 방향의 내용을 덧붙여 제한**하므로, ㉠은 '그러나'와 같은 역접 접속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④ X: 전환은 앞의 화제에서 다른 화제로 옮겨 가는 기능이다. ㉡ 뒤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장기적 추진은 앞에서 제기한 계획과 태세의 필요성을 이어받은 내용이다. 다른 화제를 도입하는 전환이 아니라, 앞의 경고를 근거로 **필요한 실천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순접**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에서 (가)~(라)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생물의 동면을 결정하는 인자 중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상 기온이 있듯이 기온은 변덕이 심해서 생물체가 속는 일이 많다.
(가) 하지만 위험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를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매우 많다.
(나)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날씨의 변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동면에 들어가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동물들은 계절 변화에 맞추어진 생체 시계나 일광 주기를 동면의 신호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박쥐의 경우 동면하는 동안 이를 방해해서 깨우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더라도 대다수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잠시나마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버리기 때문이다.
(라)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해서 제철도 아닌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꽃을 피웠다가 날씨가 추워져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있다. 이상 기온에 속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겨울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춥지 않아 벌레들이 다시 나왔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

① (나) → (다) → (라) → (가)
② (나) → (다) → (가) → (라)
③ (라) → (가) → (다) → (나)
④ (라) → (가) → (나) → (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의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는 (라)의 추위 피해를 받아 **에너지 소모라는 또 다른 위험**을 덧붙인다. (다)는 그 위험을 박쥐의 사례로 구체화하고, (나)는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안**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라) → (가) → (다) → (나)

(라): 주어진 도입부는 기온의 변덕 때문에 생물체가 속는 일이 많다고 설명한다. (라)는 따뜻한 날씨에 꽃을 피운 개나리나 다시 나온 벌레가 추위에 얼어 죽는 사례를 제시하므로, 도입부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이어진다.

(가): '하지만'으로 앞의 내용에서 전환하여, 위험은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라)의 추위 피해를 전제로 동면에 들어가거나 깨어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라) 뒤에 와야 한다.

(다): 동면 중 깨어난 박쥐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여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례이다. (가)에서 설명한 **동면에서 깨어날 때의 에너지 소모**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므로 (가) 뒤에 이어진다.

(나): '이런 위험'은 앞에서 설명한 추위 피해와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가리킨다. 날씨의 변덕에 구애받지 않고 동면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생체 시계나 일광 주기를 신호로 사용하는 동물의 사례로 **위험을 피하는 방안**을 설명하므로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